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교정박물관 만들자

8월 이전 이후 활용 방안 놓고 지역사회 뜨거운 논쟁

장흥군, 법무부에 건의…체육시설·공원 조성도 요청

옛 장흥교도소(사진)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장흥군이 ‘교정역사 박물관’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수용시설 물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8월 말 장흥교도소 이전을 계기로 장흥군 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 군민들의 구 부지에 대한 관심과 고조되자 최근 법무부(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활용방안과 매입 계획(안)을 건의했다. 1975년 4월 장흥읍 원도리 200번지 일원에 개소한 장흥교도소는 39년 만인 지난 7월 용산면 어산리 471번지 일원으로 이전했다.

군은 법무부 차원에서 총 9만7218㎡(2만9400평) 부지 가운데 40년 역사를 지닌

구 장흥교도소 청사시설 7115㎡(2150여평)를 범죄예방을 위한 수용시설 체형과 교정행정의 역사자료 전시관 등 ‘교정역사 박물관’으로 보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전국 제일의 국민 휴양지로 자리매김한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와 전국 최초 주말시장으로 각광을 받는 ‘정남진 토요시장’, 동학혁명의 최후 격전지인 석대들 전적지 인근의 ‘동학혁명 기념관’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전된 옛 교도소 청사를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해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군은 나머지 대지(3만2489㎡)와 농경지(5만5700㎡), 교정아파트(1913㎡) 부지는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의 편



장흥읍 원도리에 위치한 옛 장흥교도소 청사.

익시설로 활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 장흥군수는 “구 장흥교도소 문제를 이달 중으로 군민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난후 매입대책과 활용방안을 군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장흥교도소에 대한 자산 평가액은 총 52억원(감정 평가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산관리공사 측과 수익계약 방식으로 매입·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I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서 수(



현대 삼호중공업과 인증기관(DNV GL) 관계자들이 6일 회사 홍보관에서 국제 표준 에너지 경영시스템인 ‘ISO 50001’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있다. <현대 삼호중공업 제공>

현대 삼호重 ‘에너지 경영’ 국제인증

국제표준화 기구 ‘ISO 50001’ 인증서 받아

현대 삼호중공업 영암 본사와 대불 사외공장 등 전 사업장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현대삼호중은 지난 6일 회사 홍보관에서 인증기관(DNV GL)으로부터 국제 표준 에너지 경영시스템인 ‘ISO 50001’ 인증서를 받았다.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지난 2011년 6월 발효된 ISO 50001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 향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지난 1월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진조치를 구성한 후 ▲에너지 경영 표준서 제정 ▲경영방침 확

정 ▲에너지 검토 및 목표관리 등 인증

서 취득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330만㎡ 야드에서 선박과 해양설비 등 연간 50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현대 삼호중은 6기의 콜리트 크레인을 비롯해 도크 2기와 육상건조장 등 초대형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절단과 용접, 탐재, 시운전 등 선박건조와 관련된 작업 특성상 대부분 가스와 전기, 유류 사용이 많다.

현대 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 유류 등 에너지비용이 연간 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만 줄여도 5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인증서 취득을 계기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강진군 무논점과 농법 확대 나선다

노동력 65% 절감…재배농 40명 선도지역 전학

강진군이 내년부터 노동력 절감 농법을 본격 추진한다. 물을 채웠다 뺀 논에 짙은 범사를 파종하면서 비료까지 뿌려 주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무논점과(點播) 측조시비’(側條施肥) 기술이다.

강진군 농업관련 공무원과 비배배농가 등 40여 명은 최근 벼 무논점과 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지역인 경남 사천과 전북 군산의 현장을 견학했다. 경남 사천은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논 면적의 35%(1521ha)를 무논점과로 재배하고 있고, 전북 군산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무논점과 실증포장이 있는 지역이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강진을 초동마을과 신전면 신흥마을 80ha에 ‘무논점과’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농법은 못자리 관리시 실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초기 노동력의 65%를 절감시켜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진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서 2017년까지 강진지역 논 면적의 30%(3000ha)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군 “AI 확산 방지”

한옥건축 박람회 등

주요 행사 줄줄이 연기

영암군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막기 위해 한옥건축 박람회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AI 조기 종식을 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영암 군민의 날’을 비롯해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 ‘왕인 국화축제’ 등 주요 행사를 간소화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군서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는 내년 4월 왕인 문화축제와 연계해 열기로 결정했다.

29~30일 예정된 ‘제39회 영암 군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축하쇼), 성화봉송, 문예·체육행사를 취소했다. 29~11월 9일 ‘제8회 왕인 국화축제’도 국화 작품전시회로 축소·변경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거점방역 소독, 가금류 사육농가 차단방역 강화 등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영암=대성수기자 dss@



장흥 메밀꽃 축제 놀러 오세요

장흥 출신 이정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무대인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선학동) 일대에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듯’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곳에서 10~12일 사흘간 ‘메밀꽃 축제’를 연다. <장흥군 제공>

민·관 손잡고 지역경제 살리자

강진군-주민 합동회의 전통시장 활성화 등 논의

강진군과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진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상가 기(氣) 살리기 정책위원,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가

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6기 중점 추진 3대 과제(미래비전, 개혁혁신, 사람중심 소통)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역상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강진사랑 상품권’ 발행유통을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 ▲세계 모란공원 조성사업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 ▲전남교통연수원 이전 건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조정연 중앙로상가 변형회장(강진상가 살리기 정책위원)은 “군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보조를 맞추고 힘을 실어줘 강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측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일조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보통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면 엘리베이터,풀오피스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NH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자택지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필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품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재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